

# 정례브리핑

2020.7.1(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 차관계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북한에 1,000만 달러 지원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발언 때문에 좀 보류됐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렇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통일부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초에 발생한 남북관계 동향을 반영하여서 잠시 보류된 상태이고, 추진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추진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분기 탈북민, 2분기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 숫자가 아직도 잠정인가요? 좀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렇게 급감한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에 입국 탈북민 숫자, 탈북민의 수는 잠정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으로 급감한 것은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탈북민,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 급감했기 때문에 탈북지원금도 삭감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탈북지원금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그간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삭감보다는 좀 이왕 책정된 거 조금 증액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탈북민의 정착지원금의 규모가 적다 또는 많다는 분야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차 추경안에서 탈북민 정착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책정된 예산 안에서 탈북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탈북민 정착 지원예산도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불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극복 노력에 통일부가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해 오면서 삭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